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 우주에 도전한다



먼저 지난 10년간에 통우연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하여 연구회를 이끌어 오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에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회원들의 개인적인 기술성장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아직까지는 크게 번성하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의 위성이 7기나 운용되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면에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미래전망이 밝고 우리들의 기술적 성장을 강요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한·일간의 “제2차 위성통신 공동학술표표회”에 참석해 보고 통우연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분야 전문가가 많이 모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표논문내용이 지금 세계적인 현안문제와 미래지향적인 첨단 과제들이었고, 셋째는 학계와 산업계의 젊은 전문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기술개발의 정보교환은 물론 기술개발의 공동노력도 확산될 수 있고 또한 한·일간의 친선도 더욱 증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어집니다.

우주는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 라고도 하고 그 개발결과는 인류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에 참여하여 응분의 기여를 함으로서 등참의 의의와 수혜에 대한 권리를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우주개발에는 많은 투자와 많은 전문인력이 소요되므

로 국제 협력을 통해 일을 분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국가로서 선진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신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일부 소형위성과 영상처리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첨단 상용우주기술분야는 아직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기술선진국의 경험을 배워 기술개발 추진체계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전문가인 관료가 우주개발추진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1000여명의 전문인력이 있다는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전문가 집단이 전문적으로 참여할 때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유한한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주개발추진위원회(가칭)같은 상설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에 따라 현대 산업사회는 그 근간이 지식정보산업으로 큰 틀이 이전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개발과 새로운 이용을 통하여 인류 공영의 목표를 실현함은 물론 지식정보사회를 견인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산업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위성전문인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는 문명사회의 본질 속에서 탐구하고 쟁취하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통우연 회원 여러분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상호 교류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불멸의 업적이 속속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른 어느 학술단체와 달리 학계, 연구계, 산업계 그리고 정책당국이 고루 참여하고 있는 통우연이 명실공히 위성통신·방송 및 우주산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기술정보교환의 장 그리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산업발전정책여론을 수렴하는 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견인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 11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최 순 달